광남일보

LH-서구청 '따뜻한 주거복지 시즌2' 맞손
미래신협 동참…작은도서관 활성화·주거비 절감 7

'성장장성' 브랜드 전국에 알렸다
군, 체전·정원박람회 등 효과 극대화 8

곡성 '워크빌리지 곡성 시즌3' 본격화
생활인구 유입 효과…"워케이션 성지 만들터" 9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새 수장에 김허경씨
업무 돌입 시민 프로 강화…세계화에 주력 14

조간 제785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음력5월8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대한민국 선택의 날 밝았다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의 날'이 밝았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12·3 계엄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도중 파면돼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조기 대선이다.

특히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침체를 겪는 등 대내외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다시 뛰게 할 새로운 리더십을 온 국민은 갈망하고 있다.

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6·3 대선 투표가 시작된다. ▶관련기사 2·3·4·15면

이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이후 개표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유권자 여러분의 투표소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모두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커다란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모든 유권자께서는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선거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치러져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이나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오늘 하루라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마곡나루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두손을 들어보이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하루 앞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계엄 촉발 조기 대선 새로운 지도자 갈망

이재명 '여의도'·김문수 '광화문'서 마지막 유세

대선 후보는 모두 5명이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기호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권영국,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이다.

기호 3번은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결번 처리됐고,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중도 사퇴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경기 하남과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를 거쳐 오후 7시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쳤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경기도를 거쳐 지난해 말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여의도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해 검증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한편 '계엄 극복'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일정을 시작해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전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제주부터 시작된 국민의 함성이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울려 퍼진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꼭! 투표합시다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가능 당선인 윤곽 자정께 나올 듯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 357곳과 전남 806곳 등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광주는 선거인 수 119만4471명 중 62만2587명이, 전남은 선거인 155만9431명 중 88만1109명이 지난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통상적인 임기만료 시 선거의 투표 종료 시각은 오후 6시이지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보궐 선거'라는 점에서 투표 종료가 2시간 늦춰졌다.

선거법 155조 1항에 따라 투표소를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하지만, 보궐선거 등의 선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후 8시에 닫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투표소도 오후 8시에 닫힌다. 오후 8시 시점에 투표소에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은 오후 8시 이후에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투표가 완전히 끝나는 시각은 오후 8시보다 다소 늦은 시각이 된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자정께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새 정부 국정과제에 'COP33 여수 유치' 채택 총력

김영록 지사 등 민관대표 간담회…"지방주도 균형발전 실현"

전남도는 2일 여수시청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여수 유치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동서포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YMCA, 여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 민·관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198개국이 참석해 기후변화협약 이행 방법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회의다. 2028년 33차 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이 유치 의사를 표명하면 아·태지역 그룹에서 협의를 통해 개최국이 결정된다.

전남도는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며, 여수시와 함께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 유치 모델을 통해 유치 기반을 넓혀왔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정과제 반영, 국가 유치 의사 표명, 아·태지역 그룹 내부 협의 결정, 개최 도시 확정을 목표로 한 유치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COP33은 대한민국이 기후 리더십을 세계에 천명하고,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여수산단이 고부가가치 산단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어려움을 겪는 여수산단의 구조조정이 친환경적으로 이뤄지도록 COP33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정렬·여수=송원근 기자 holbul@gwangnam.co.kr

제11회 DK·광남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특집 16면